

결과는 과정에서

Set the Procedure First

황일인 / (주)일건 건축사사무소
 by Hwang Il-In

식물 도감에 보면 「너도 밤나무」, 「나도 생강」하는 식의 재미있는 이름들이 있다. 이 놈들은 실은 밤나무나 생강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단지 어떤 부분이 비슷하여 붙여진 이름에 불과하다.

선진국들 모임에 가입하여 선진국 행세를 하겠다고 했을 때 뭐가 그리 급한가 했는데 정말 왜 그리 출석 됐느냐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선진국이란게 이름 붙인다고 금방 되는 것이 아닐 바에야 좀 더 내실을 다지고 겸손하게 굴었으면 덜 부끄럽지 않았겠나 싶다. 옛말에 스스로 나타내는 자는 빛을 내지 못하고(自見者不明),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드러나지 않는다(自是者不彰)라고 했듯이 나라가 잘 나가면 남들이 먼저 알아보고 권했을 것이다.

어느날 느닷없이 나라 살림이 거덜나게 생겼다고 벌컥 뒤집어진 지도 벌써 일년이 넘었다.

온갖 수모를 무릅쓰고 IMF 구제금융을 구걸하여 급한 불은 꺾었지만 빛을 얻어 빛 깊은 격이니 일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런 엄청난 국가 재난이 나도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 없다. 국회는 정부가 하는 일을 감독하고 나라가 어려울 때 국민 의사를 수렴하여 대안을 만드는 것이 그 기능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믿어 본 적은 없지만 그동안 무얼하고 일이 터지니까 기껏 “누가 어디다 보고를 했느냐 어쨌느냐” 가지고 아까운 세월을 보냈다. 사람이 죽어 가는데 누구 때문에 다쳤는지 따지는게 뭐가 그리 급할까. 따지나 마나 나라가 잘못되면 그 책임이야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정작 다급한 것은 상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이를 극복할 방안을 연구하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건국후 최대 위기라는데 그리된 사연이 없을 수 없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다.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불거져 나왔을 구조적인 문제다. 아니, 사실은 수없이 많은 이상 징조들이 이미 있었다. 다리가 무너지고 백화점이 붕괴된 것이 작은 일인가. 어지간한 건물의 설계는 외국 건축가의 손에 넘어갔고(실은 스스로 넘겼지만) 미국인 목수가 더 경제적이라 했다. 지하철이고 고속철도고 설계를 시작하면 착공부터 하고 본다. 공사도 시작되었다. 그리고 일이 터졌을 때 모두 “드디어 올것이 왔구나” 했다.

60이 넘는 일본인 이케하라 씨가 생의 절반 가까이를 한국에서 살면서 - 그의 표현대로 하자면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 쓴 「한국, 한국인 비판」은 우리가 IMF사태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엄치없는 한국인들」, 「무법천지 아, 대한민국」 등 몇 개의 소제목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비뚤어진 교육열과 교육제도, 안하무인격인 무례와 총체적 무질

서, 엉뚱한 과대 망상증, 비합리적 사고체계, 뿌리 깊은 부패와 정경유착, 장기적 안목의 결의 등... 감출 수 없는 우리의 치부를 세세히 적고 있다. 이 책을 보면 한국이 지금까지 버틴 것 자체가 기적같이 느껴진다. 아무리 애정어린 충고라 해도 잘못에 대한 비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인데 한·일간의 특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로써는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용기를 보여 주었다. 한국인들 스스로 문제 의식을 느끼고 풀어가지 못하는 것을 그냥 볼 수 없었던 안타까움이 느껴진다.

지난 30년 우리는 모든 가치의 척도를 경제에만 두어 왔다. 자타가 인정하는 놀라운 양적성장을 이끌어냈으나 「결과」만을 최고의 선으로 치부하도록 길들여져 온 것도 사실이다. 과정이 무시됨으로써 「삶의 원칙」이 그 빛을 잃었다. 금세기 전반부의 굴욕적 역사와 비극적 동란 공간에 더해진 이러한 요소들이 이케하라 씨에 의해 지적된 「한국적 현상」들의 단초가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짧은 기간 동안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생겨난 이러한 모순과 갈등을 우리 사회가 가진 과거의 틀로써 안고 있기에는 이미 한계를 넘어선지 오래다. 저간의 사태를 극복하는 길은 새로운 세기의 세계 질서에 부응하도록 국가 가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 개혁의 첫걸음은 모든 일에 절차를 제대로 지키는 것에 있다. 「빨리 빨리」 증후군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정부와 환경보호 단체들 사이에 뜨겁게 일고 있는 「동강」 논쟁이 크게 관심을 끈다. 「동강」의 귀추를 특히 주목하는 것은 이것을 다루는 정부가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결해 내는가를 봄으로써 우리의 가능성을 점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시대의 구호였던 개발과 경제 우선의 정책에서 벗어나 「문화」와 「삶의 질」을 국정 목표로 세운 바 있다. 「동강」은 정부 스스로 표방한 목표에 대한 확고한 실천 의지를 행동으로 보임으로써 신뢰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임과 동시에 시험대가 될 것이다. 물 사정은 질과 양 양면에서 점점 나빠져 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수자원의 개발과 보존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극히 당연하다. 문제는 남한강의 치수와 장래의 물부족을 대비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과제인 것과 똑같이 자연 환경의 보존도 중요한 시대적 소명이며 더구나 일부에서 주장하는 댐의 안전성 문제는 듣기에도 민망한 기본적 사항이라는 데 있다.

지금까지의 보도내용에 의하면 이러한 모든 문제가 종합적이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나온 계획이라고 믿기에는 석연찮은 점이 한 둘이 아니다. 더욱이 물과 관련된 다양한 행정기관 간의 의견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전에 댐의 건설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국가 기간시설을 다루는 당국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과문한 타타기를 바라지만 댐의 수질 유지 대책 역시 언급이 없다. 물을 담당할 부서간의 진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수질에 문제가 있거나 수질 보존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수원 확보는 제2의 시화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한강 수계와 관련하여 팔당 수질 특별 대책구역 내에 사업비의 일정 수준 이상을 외자로 유치할 경우에는 대규모 위락시설도 허용할 계획이라 한다. 수질오염방지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수질을 유지하는 것이 기술상 얼마나 어렵고 상상 못할 투자와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할 때 이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다. 누구나 쉽사리 예측할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대규모 위락시설을 세워야 하는 타당성을 국민에게 납득시키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얼마전 모처럼 계획된 정부의 팔당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시안은 거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성안도 못한 채 유보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어려운 국가 경제회복에 필요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한 교육정책으로 짐작은 되나 그야말로 본말을 바꾸게 될까 염려된다.

이미 확보하고 있는 수자원을 제대로 보존하지도 못한다면 새로운 수자원 개발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물은 인간 생명유지의 원천이며 한번 파괴된 자연은 영원히 회복되기 어렵다. 그동안의 서해안 개발, 신도시, 고속철도 건설 등 중요한 국가 기간 시설 수행 과정에서 국가정책은 장기적 마스터 플랜에 근거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치밀한 사전 계획 없는 무리한 집행을 보여 왔다. 이로 인하여 일어난 무모한 환경파괴와 수많은 시행착오는 필연적 결과였다.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계획이 흔들리는 것은 정책 결정이 합리적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동강」으로 표상되는 새 정부의 모습은 이제 이런 전철에서 벗어나야 한다. 환경보호단체가 염려하고 궁금해 하는 어름치나 수달 등 희귀 동·식물에 대한 대책, 석회암 동굴의 현황과 아들이 물에 잠겼을 때의 결과 연락지반과 지진에 대한 대비, 경관 변화가 주는 영향 등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평가해서 그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그 방면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이다. 국토와 자연은 우리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다. 확실한 결론이 난 뒤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

IMF 사태가 왔을 때 원로 한 분께서 「이제야 살았구나. 이것은 나라가 망조로부터 구제되는 하늘이 주신 메세지」라고 하였다. 그분 말씀대로 이 위기가 국가 기반을 다시 잡게 해 주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 살아남는 길을 찾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을 때다. 그러나 그는 「서두르지 마오, 그러나 쉬지도 마오」라는 괴테의 충고를 덧붙였다.

류시화가 10여차례의 인도기행에서 터득한 바 대로 「어디로 가는 지도 모르면서 서둘러 갈 필요는 없다」